

하드페라이트 시장“호황”

국내 기술축적·엔고 영향으로 … 신장률 20 30%선

국내 하드페라이트 시장이 호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유럽 등 해외기업들의 주문량이 폭증,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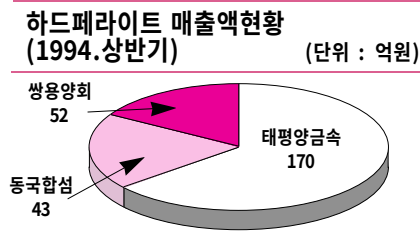
이는 엔고의 영향으로 미국·유럽 등 주요 수입국들이 수입선을 국내 기업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인해 일본의 하드페라이트 시장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이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2년 8000여톤의 생산능력을 갖고있던 일본이 94년에는 생산능력이 5000여톤으로 감소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와함께 93년부터 미국·유럽 등의 경기가 침체기를 벗어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세계경기 호황으로 전자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어 해외업계의 주문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하드페라이트업계의 호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하드페라이트 시장은 세계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90 92년 사이에 정체를 보였으나 93년 들어 세계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94년 상반기에는 20 30%정도의 신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페라이트자석 생산능력은 월 2900 여톤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태평양금속이 12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94년말 완공 예정으로 구미에 100톤규모의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평양금속은 94년 상반기에 약 17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양회는 12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94년 들어 물량이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쌍용양

회는 94년 상반기 매출액이 93년대비 약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동국합섬은 충북 음성에 연산 4500톤가량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KIST와 공동으로 95년2월 개발완료 예정으로 고특성 페라이트를 연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합섬은 94년부터 Speaker용 자석 생산을 중단하고 DC모터용 자석만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합섬은 94년 상반기에 43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하드페라이트 시장규모는 93년 기준 450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94년에는 약 58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2000년에는 700억원 가량의 시장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하드페라이트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크게 확대되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특성·재질 등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대부분을 중국에 잠식당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함께 국내 연구기관의 연구가 지나치게 회토류에 편중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계 페라이트시장은 전자산업의 발달과 중국·인디아·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발전의 영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 하드페라이트 생산능력은 26만여톤에 이르며 6500억원 가량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에는 시장규모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